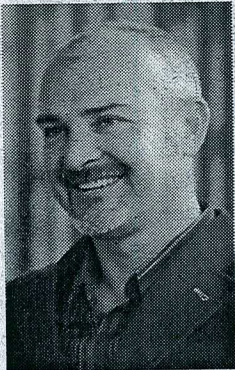


바로크시대 귀족들 코믹풍자

■ 국립극단·佛로리앙 극장 공동제작 '귀족놀이'



◇佛 연출가 에릭 비니에

서울 장충동 국립극장이 프랑스판 '귀족놀이'를 벌인다.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펼쳐지는 연극 '귀족놀이'는 '귀족수업'이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프랑스 작가 몰리에르의 작품이다.

이번에 국립극단(예술감독 이윤택)과 프랑스 로리앙 극장이 공동제작하는 '귀족놀이'는 프랑스의 젊은 연출가를 초청해 한국 배우들의 연기와 춤, 오페라, 한국 관현악 연주가 한데 어우러지는 무대로 새롭게 연출된다. 외국 오리지널팀 공연이 직수입으로 들어오는 요즘에 고전 명작무대 재연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서 한국과 본고장 무대의 교차점을 찾아내려는 시도다.

연출을 맡은 프랑스 연출가 에릭 비니에(44)는 프랑스 브르타뉴 국립연극센터 소장 겸 로리앙 극장 예술감독. 35세 때 최연소로 프랑스의 국립연극센터 소장에 임명됐을 만큼 실험성과 연극성을 고루 갖춘 연출가로 정평이 나 있다. 파리 국립연극원에서 연기와 연출을 배운 그는 폴리에르의 '아내들의 학교', 이오네스쿠의 '코뿔소',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 등 여러 갈래의 작품을 연출했다.

'귀족놀이'의 배경이 되는 바로크 음악은 박위철 조원행씨의 편곡으로 국립국악관현악단이 라이브로 연주한다. 비니에는 "한국의 국악기가 현대 서양 악기보다 17세기 바로크 시대의 소리에 더욱 가깝게 들린다"면서 "국립극장에 와서 보니 무용단 관현악단 등 산하 단체들을 활용해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이 작품을 골랐다"고 설명했다.

국립무용단과 국립오페라 단원들이



◇연극 '귀족놀이'에는 프랑스 스태프들이 참여하고, 한국 국립극단의 젊은 배우들이 출연한다.



가세해 '귀족놀이' 안에서 춤과 노래, 소리 등을 시도한다. 마돈나 비육 등 뮤직비디오의 조명감독으로 유명한 조명디자이너 조엘 우르베이 등 프랑스의 스태프가 제작에 참여한다.

'귀족놀이'는 지난 300년간 문화를 모르는 부르주아와 귀족의 허세라는 풍자 코미디로 인식돼온 작품. 돈밖에 가진 것 없는 평민 남자 주르댕이 후자부인을 사랑하게 되면서 각종 문화적인 테크닉(음악 무용 검술 철학)을 연마하며 근사한 연회를 준비해 가는 이야기다. 반면 에릭 비니에는 "꿈과 환상을 지님으로써 자신이 몰랐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나

가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해석법을 내놓았다.

현대적인 작품 해석에 걸맞게 이번 공연에서는 근엄한 중년 귀족들의 놀음이 아니라 국립극단의 젊은층을 이루는 배우 11명이 캐스팅됐다. 1670년 초연시작가 몰리에르가 직접 연기했던 주인공 '주르댕' 역에는 국립극단의 간판배우로 자리잡고 있는 이상직이, 후자부인엔 광

명화가 출연한다.

이번 공연은 한국 공연 후 10월 11~16일 프랑스 로리앙 극장으로 무대를 옮긴다. 이로써 국립극단 '귀족놀이'의 로리앙 공연은 프랑스측과 공동제작을 통해 출연료를 받고 나가는 공식적인 첫 해외 진출이 된다. 이 1주일간 로리앙에서는 한국의 영화 음악 음식문화가 소개되는 한국문화축제가 열린다. 로리앙 극장측에서는 이번 한국문화축제를 원년으로 '로리앙에서 로리앙으로(오리엔트에서 오리엔트로)'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02)2280-4115 www.segye.com

김은진기자/jisland@segye.com

몰리에르 '귀족수업' 각색... 우리배우들 연기
라이브 국악연주... 오페라·소리·춤 어우러져
국내공연 후 출연료 받고 10월에 佛공연